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64호 현대불교

29

2011년 11월 30일(음 11월 6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마음의 장난 아닙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진리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교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불(佛)이요,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오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또 자비를 알고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고 하는 것이 교(敎)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무한하게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 하나가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뮈얼로 하자면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거죠. 그 자동적인 컴퓨터는 이 정수봉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룸해서 정수봉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머리 위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쓰게 되는 시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한 지구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버스라면 그 버스 한 대 안에 앉아서 내 좌석이니 내 좌석이니 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한 철 살다 같은 생들이 왜 그렇게들 버스 하나 안에서 격하게 내 거 내 거 가르면서 싸우는지 모르겠습디다. 한 철 사는 자체가 바로 자기가 자기 차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차원이 주어지고, 또 미래의 차원이 주어지고 삶과 권리와 모습이 주어집니다. 이걸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버스 안에 식구가 들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온갖 생명들이 다 들어 있으면서도,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싸우던 얘기도, 때리고 싸워야만 싸움입니까? 욕심과 관습 때문에, 의리부동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부덕한 탓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역경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 가려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마음을 개선해서 참다운 진실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 정진계를 무시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리드해 나가는 정진계를 유습계 생각한다면 자기 몸뚱이 싸이 어떻게 푸르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뚱이를 싸이로 비유하면 자기 불성의 주인공은 바로 뿌리입니다. 그런데 요만한 이파리 하나도 뿌리에 다 달려 있거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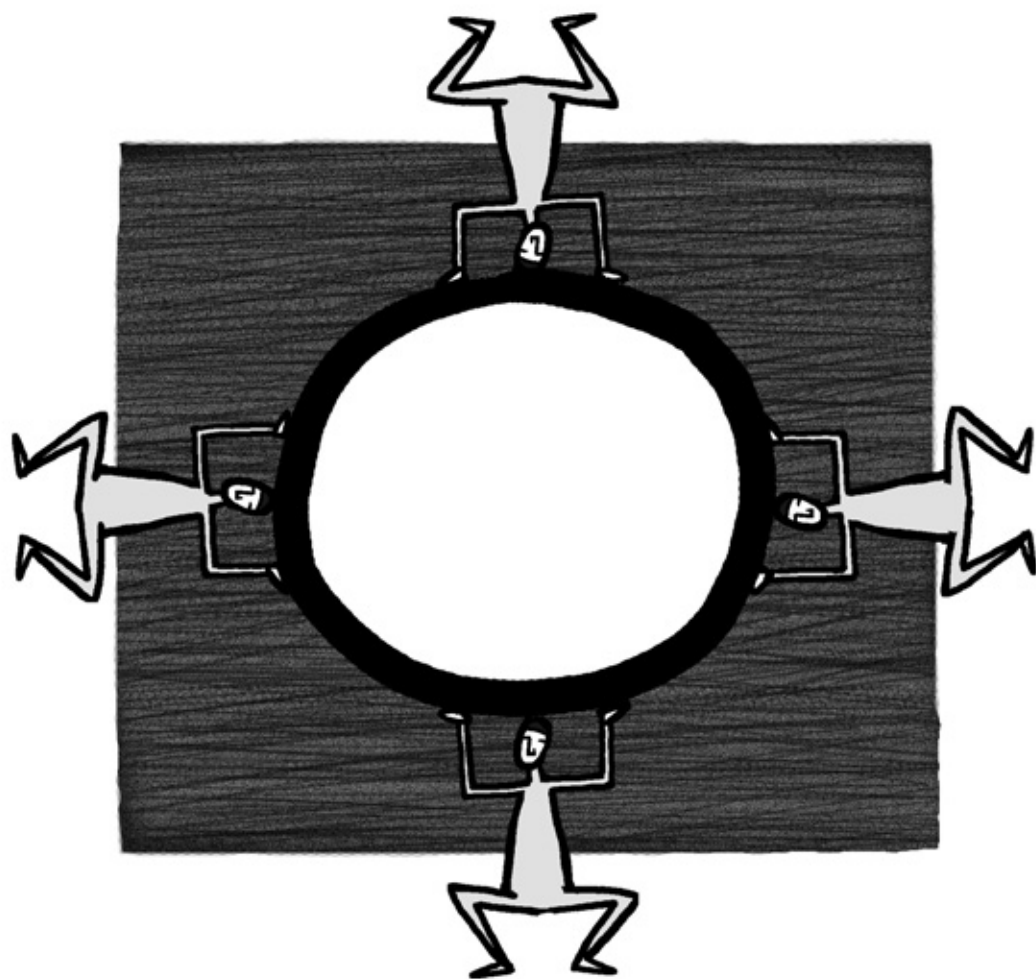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렇게 자기를 리드하고 자기를 이끌어 주고 자기를 지켜 주고 자기를 작용케 해 주는 근본 자기 보배를 무시하고 겉테기 자기만 자기라고 하니 진정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실정이 나오겠습니까? 의미가 나오겠습니까, 도의가 나오겠습니까? 충성이 나오겠습니까, 효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이걸 그저 자기 겉테기만 아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그 음파가 퍼졌다 반사되어서 자기한테로 다시 들리는 메아리를 말합니다. 공을 벽에 치면 자기한테로 다시 튀어오는 원리 말입니다. 아무리 길으로는 듣지 못하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상대방은 그걸 알고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뜻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는 대로 상대방도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소리도 그렇게 속으로만 나오고 나중에 터지면 크게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애들에게도 인생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수레같이 굴러간다고 가르쳐 줘야, 길을 땀겨 줘야 될 텐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 교육계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싸움도 없애고 부모에게 망나니짓도 안 하고 강도도 없애고 도둑도 없애고 사기꾼도 없애진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무것도 겁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근본이 수역계를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 왔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일대사의 인연을 맺은 그 뜻을 빼 한 무더기를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생략해서 말하겠습니다. 거기다 절을 하시니 "어찌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하찮은 거기가 절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예, 그 말 마라.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다." 하고 대답하신 뜻이 뭐냐. 우리들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수역계를 거치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면서 진화되면서 형성된 장본인이 모두 여기 지금 앉아서 계십니다. 나로부터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역계를 거치면서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 왔습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꺼내 놓기 위해서 그냥 아픔을 무릅쓰고 찢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매미는 천 일을 땅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번데기를 만

들어서 그 속에서 또 기다리다가 자기 몸을 찢고 나오는데, 그래 놓고도 얼마나 있다가 갑니까?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여인네들이 어린애 낳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조상이 자식한테 태어나기도 하고 자식이 죽어서 또 부모한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겉테기를 찢고 나옵니다. 어떠한 생명체들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산길을 걷다가 보니까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배들배들 하면서 뿌리를 땅에 못 박아서 그냥 건당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서는 뿌리를 땅에다 던지 못하니?'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선 흙을 좀 갖다 뿌리를 묻어 줬어요. 나중에 몇 달 만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뿌리가 땅속으로 아주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옥수수나무도 보세요. 이거 생략해서 몇 마디 하는 겁니다. 그 해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기후가 아주 험하다 할 것 같으면 머리머리 그냥 사방으로 뿌리를 아주 깊이 잡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데, 고등 동물인데... 부처 될 수 있는 가량이 99%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처는 이미 돼 있는데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안팎이 다 알아야 하는데 안에서는, 불성은 본래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본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그냥 여유하게 살고 있게끔 돼 있는 거고 전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내고 들고 내고 들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따라서 여여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말이지만은 또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수역계를 거치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올 동안 그 치욕스러운 아픔을 얼마나 견뎌 왔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거보다도 지금 IMF 때문에 뭐가 어떻다고요? 과거에도 이런 IMF 같은 경제 혼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만 이렇게 온 게 아니죠. 역사를 본다면 일제시대 때는 나라도 뺏기고 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뭐라도 연명하려고 토마토 한 소쿠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가다 들켜

30면으로 계속

반야심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신선한 발상, 새로운 접근, 알기 쉬운 해설!  
문자 해석을 넘어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현실적인 해설!



### 집착을 버려라

물질과 과학의 노예가 되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현대인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주는 책.

히로 사치아 저, 강인 옮김 | 국판변형 | 270쪽 | 값 10,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11월 19일(토) 10:00~18:00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죽음,

##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초기불교와 인도·티베트 불교, 선불교, 서양철학과 현대의학 등 각 분야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성찰한 책.

정준영·안성두·황금연·박찬국·우희종 저 | 348쪽 | 18,000원

밝은 사람들 총서



정준영 외  
396쪽 | 12,000원



권석만 외  
504쪽 | 23,000원



미산 외  
400쪽 | 12,000원



우희종 외  
424쪽 | 12,000원



미산 외  
416쪽 | 12,000원



# 닥치는 대로 모든 걸 수용해서 주인공에 놓으세요

29면에서 계속

서 그냥 발길로 차여서 내던져지고... 그럴 때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밥을 굶습니까, 옷을 헐벗습니까? 좀더 생각이 깊다면 우리가 침착하게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죠.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폭풍이 치더라도 배에 탄 사람은 선장을 믿고 선장한테 의지하고 어떤 거든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가는 데까지 가는데, 배에 앉아 가지곤 온통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주해신!' 하고 찾으니, '굽어살펴 주소서.' 하고 그냥 뛰고 야단법석을 하나 배는 뒤집히게 돼 있죠. 오직 자기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더불어 선장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하나로 믿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이라고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는 데까지 능히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격이죠. 침착하게 정신계의 과거 자기를 믿고,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자기를 진화시킨 장본인이니까 진짜로 믿고 '너만이 모든 국난을 다 평정하게 할 수 있어.' 하곤 그냥 거기다 맡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빨리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빨리 국난이 극복되고 빨리 돈을 갖게 됩니다. 가정의 일도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모든 걸 수용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또 잘됐으면 '감사해.' 하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만 한다면 빨리 해결되는 거죠. 학교 내에도 굶는 애들도 많고 지금 자식한테 버림받고 있는 노인들도 많고 나와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우정 이름을 감추고 가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알아보니깐요. 그것을 볼 때에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다 내버리고 그러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겁니다.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그렇습니다.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고 상대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부터 알아라. 바로 네가 있는 게 주처다.' 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저기서 찾아야, 고상을 걸어 놓고 맡아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모두?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 형상도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 생명도 내 생명이다. 그저 삼 배를 올리든 칠 배를 올리든 구 배를 올리든 둘 아닌 까닭에 항상 마음으로 동글러서 올리면, 바빠서 일 배를 해도 구 배가 되고 구 배가 삼백 배도 되고 백팔 배도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 배가 백팔 배도 된다 이겁니다. 삼천 배도 되구요.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미국을 가는데도 빛

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마음이 빛보다 더 빠르겠느냐?' 이러겠지만 빛보다 더 빠른 거예요. 빛은 착오가 있지만 이 마음은 착오가 없어요. 물속이고 어디고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계를, 나를 이끌어 가는 나 자신을 모른 척하고 만날 바깥에다가 빌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는 빼놓고 항상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제 자기가 자기를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너의 몸뚱이가 오신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을 벗어나야 바깥에서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거지, 네가 네 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 통을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느냐?" 그러셨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마음이 벌써 자기를 리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다스리고, 자기를 리드하면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

불교를 믿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세미나가 벌어졌어요. 일본 불교도 뭐 기독교 가톨릭교 모두 모여서 말입니다. 우리 스님네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 모습을 우습게 보는 것은 당신네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불이라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해 주면서, 또 중이란 어느 종교 하나에 국한됨이 없이, 진리를 숭상하는 대인이나 바로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스님네들이 왜 그렇게 싸움입니까?" 그러기에 "그건 도반들이 투쟁하면서 발전하는 거고 그래. 부딪침이 없으면 도를 이룰 수가 있나?" 이랬죠. 사실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생각하기에 달린 건데 생각을 넓게 못하면 아예 그냥 뺏아가죠. 남을 헐뜯게 되고 망가지게 만들고 이러는 거죠.

리죠.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우리의 머리도 좀 더 시대에 따라서 깨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옛날 방편으로는 애들 기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현대의 방편으로써 좀 써가 먹히게 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죠. 하다못해 식탁 위아래도 '과거 너를 믿어라. 진짜 너의 주인공을 믿어라.' 하고 써놓고 의욕이 없으면 거기다 '너만이 의욕 있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아프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너만이 집안이 화목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려고 하세요. 모두 거기에요. 거기가 원동력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사람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과학이 아닙니까? 불이 꺼

세계의 자기 근본하고 통하게 하는 거죠. 이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 있던 말입니다. 잔뜩 들어 있는 생명들의 의식이 있던 말입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의식이 더해 같이 공용(公用)이 됩니다. 즉 불가에선 용무(用無)라고 그러죠. 용무의 행이라고 그러지마는 우리는 공용이라고도 합니다. 공용의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공심이 되는 거죠. 공심이 되면 공용으로 온갖 마음 의식을 다 내서 바깥까지, 즉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다 처리를 하고 다시 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천체물리학이기도 하고 심성의학이기도 합니다. 심성 문화도 되고 일체, 어떤 거든 아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하다못해 요런 돌 하나 굴러가는 걸 봐도 내 스승이거든 머리 깎은 스님을 업신여겨서 되겠습니까. 머리를 깎는 것은 일체 무명초를 깎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말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깎아 버리는데 끊임없이 다시 나와요. 나오면 또 깎아 버리고 나오면 또 깎아 버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하고 그만큼 진실하게 실천하는 데서 모든 게 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도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살을 찢는다고 그랬잖습니까? 몇 겹을 찢어요.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는 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미물의 짐승이나 또는 미생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사는 거든 질척한 데서 사는 거든 허공에서 사는 거든 우리 인간들이든 다들 보면 다 그러한 고통이 따르고 그러한 괴로움이 따르고 그런 아픔이 따르요. 육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세상을 보면 우리 인간도 지금 정신계에서 정신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잡아먹고 그러진 않아도 정신계에서 역시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을 잡아먹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리드해 나가는 자기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믿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데서 다가오는 것은 칼을 들고 와도 대치를 못할 거니까요. 몸뚱이를 들고 와도 대치 못해요. 병균이 닥쳐와도 대치를 못하고 영계성이 닥쳐와도 대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꼭 믿고 주인공을 잡고 있으면 들에서는 오방신장 또는 호법신장이요... 뭐 모두가 그 한생각에서 다 화해서 나오는 거죠. 부처님 마음속에서 보살들을 다 낳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8년 12월 1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꽃이 핀 것도 보고 돌 있는 것도 보고 물 흐르는 것도 보고,  
모든 걸 보고 배웁니다.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배웠으니 내 스승이요,  
또 그것들은 날 보고 배웠으니 또 내가 스승이요.  
그러니 피장파장이죠.  
이게 평등공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 줄 안다 이겁니다.

참, 요만한 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꽃이 핀 것도 보고 돌 있는 것도 보고 물 흐르는 것도 보고, 모든 걸 보고 배웁니다. 그것도 전부 살아가 있어야요. (법상을 두드리시며)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역사가 있고 있어요. 그런데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배웠으니 내 스승이요, 또 그것들은 날 보고 배웠으니 또 내가 스승이요. 그러니 피장파장이요. 이게 평등공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좋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마음 도리를 실천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천에 역점을 두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행할 수 있다면 만민이 다 아마 "당신은 정말 정말 진짜 사람이야." 할 거예요. 죽어도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을 때, 한 철 살다가 회향할 때에 그냥 깨진 바가지처럼 구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회향입니까, 어디? 인생 산 겁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불교는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지 머리 깎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저 못났더라도, 배우지 못했더라도 좋아요. 내 마음이 넓고 착하고 진실되면 그저 어디에서든 알게 돼 있고 어디에선가 다 보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교 세력이 인도에 침입하면서 전자에 불법을 공부하던 대학도 태우고 경전도 다 태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도가 지금 뭐가 잘 됩니까? 병신이 너무나 많고, 그 잘못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화해서 나와서 결국은 부처님 법당에 가서 연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사람이 자기 한 대로 사는 겁니다.

정수부이라는 게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우리 전부에게 있습니다.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갖추어진 자동적인 컴퓨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입력이 됐단 말입니다. 입력이 돼서 입력이 된 대로 현실에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어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 놓으면 바로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고 새로 입력이 돼 들어간다 이 소립니다. 얼른 쉽게 불가에서 하는 말로 하자면 '소멸된다' 이 소

지고 켜지는 것은 보면서,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냥 부모 자식이라는 가설이 된 거예요. 본래 가설이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스위치를 딱 올리면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하고 그렇게 해 주면 그쪽에도 불이 들어와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회개를 하고선 '어머니, 내가 이년까지 참 잘못했어요.' 그러곤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는 그런 자식들도 많고 그런 남편들도 많고 그런 부인들도 많아요. 금방 헤어지겠다고 하다가도 그냥...

그게 마음의 작용이니까요. 우리 사는 게 마음의 장난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다. 과거의 나, 불성이라는 거는 체가 없고 움추거리지도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준다. 아주 움추거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 배출해서 바위가 이탈하지 않게 굴러가면서 여러 용도대로 씽씽이를 쓰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꼭 잡고 믿고 모든 것을 이탈되지 않게 한생각을 잘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허공에 그림 그리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한생각이라는 것은 내면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통이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르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하던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천수경(한글/영어)

10,000원  
A5 / 287쪽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헌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